

# 국 외 출 장 보 고 서

2017. 7. 4.~ 2017. 7. 15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 국외출장보고서

2017. 7. 20.  
국제전략협력실

## ■ 출장 개요

### ● 출 장 자 (총4명)

구분	성 명	소 속	직 급
1	김진환		원장
2	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	실장
3	전현욱	국제전략협력실	국제홍보팀장
4	안수정	국제전략협력실	위촉전문원

### ● 출장 기간

구분	성 명	소 속	직 급	일 정
1	김진환		원장	2017.7.4.~7.9 (4박 6일)
2	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	실장	2017.7.4.~7.15 (10박 12일)
3	전현욱	국제전략협력실	국제홍보팀장	2017.7.4.~7.9 (4박 6일)
4	안수정	국제전략협력실	위촉전문원	2017.7.4.~7.9 (4박 6일)

### ● 출 장 지

호주 캔버라, 케언즈(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장)

### ● 출장목적

#### ① 호주형사정책연구원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호주형사정책연구원 방문 및 국제교류협약(MoU) 체결
- 호주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세미나 개최
- 연구 분야 소개를 통한 호주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기회 모색
- 호주형사정책연구원 에 행정원의 주요사업 및 최신연구자료 소개

② 호주국립대학교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공동연구 진행 중인 호주국립대학교 방문 및 아시아태평양지역학부와 MoU 체결
- 형정원 연구사업 소개 및 호주국립대학교 사이버범죄연구소 연구사업 소개를 통한 공동연구기회 모색
- 사이버범죄 2017년 공동연구 세부사항 논의
- 공동세미나개최 기획 논의

③ 제9회 아시아범죄학대회

- 아시아범죄학대회 이사회미팅 참석
- 아시아범죄학대회참가 유관기관들과 교류논의 진행

● 출장자 업무분장

구분	성명	
1	김진환 원장	AIC, ANU와 국제교류협약 체결/공동연구 및 세미나개최 논의
2	연성진	국제교류협약 총괄진행,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개최 논의 주재/아시아범죄학대회 이사회 참석, 특별세션 발표, 아시아범죄학대회 참가 유관기관과 교류논의 진행
3	전현욱	국제교류협약 지원, 형정원 연구성과 및 VFAC 관련주제 발표
4	안수정	국제교류협약진행 지원, 교류내용기록/발언정리 및 유관기관 업무 협의 진행 지원

● 출장 일정

① 기관방문 및 교류협약체결 일정

일자	장소	주요 일정	
7. 4	서울 출발	18:45	인천공항 출국(KE121)
7. 5	시드니 공항 경유- 캔버라 공항 도착	09:00 09:55	시드니 => 캔버라 이동(QF1467)
7. 6	호주형사정책연구원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09:30 -12:00	KIC-AIC 학술 세미나 ○환영사 및 답사 - 김진환 원장 - Paul Williams Acting Chief Ececutive Officer ACIC/A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호주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CEO가 공석임</li> <li>○AIC 및 KIC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ick Brown AIC 부원장</li> <li>- 연성진 실장, 전현욱 팀장</li> </ul> </li> <li>○학술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개인정보의 형법적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자 : 전현욱 팀장</li> </ul> </li> <li>- 주제 : 경찰유치인의 마약사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자 : Samantha Bricknell</li> </ul> </li> <li>- 주제 : DNA의 증거사용을 회피하려는 범죄인 전략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자 : Anthony Morgan</li> </ul> </li> </ul> </li> </ul>
		14:00 -14:30	MoU 체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진환 원장</li> <li>- Paul Williams Acting Chief Ececutive Officer ACIC/AIC</li> </ul>
		14:30 -16:00	교류협력 내실화 방안 논의
7. 7	호주국립대학교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4:00 -14:30	ANU 사이버범죄연구실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oderic Broadhurst 교수 및 ANU 연구진</li> </ul>
		14:30 -18:00	MoU 체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영사 및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진환 원장</li> <li>- Michael Wesley 아시아태평양 지역 학부 학장</li> </ul> </li> <li>○ANU 및 KIC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oderic Broadhurst 교수</li> <li>- 연성진 실장, 전현욱 팀장</li> </ul> </li> <li>○KIC-ANU 공동연구 성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oderic Broadhurst 교수</li> </ul> </li> <li>○교류협력 내실화 방안 논의</li> </ul>
7. 8	캔버라 공항 출발 - 시드니 공항 도착	12:15 13:10	캔버라 => 시드니 이동(QF1474) * 항공기 시간 관계로 당일 서울행 비행편 이용 불가능
7. 9	시드니 공항 출발 - 서울 도착	09:15 19:30	인천공항 도착(OZ602) - 김진환 원장 외 2명

② 아시아범죄학대회 참석 일정(연성진 실장)

7. 9	시드니 공항 출발 - 케언즈 공항 도착	13:10 16:20	캔버라 => 시드니 이동(QF1474) * 캔버라-케언즈 직항이 없음
7. 10 - 13	케언즈	종일	아시아범죄학대회 참석 ○ACS 이사회 - 일시 : 10일 16:00 - 17:30 ○주제발표(연성진 실장) - 일시 : 12일 16:00 - 주제 : Crime and Justice in Asia 발표 ○ACS 만찬 - 일시 : 12일 19:00 - 23:00
7. 14	케언즈 공항 출발 - 시드니 공항 도착	12:00 14:55	케언즈 => 시드니 이동(QF925) * 항공기 시간 관계로 당일 서울행 비행편 이용 불가능
7. 15	시드니 공항 출발 - 서울 도착	07:45 17:45	인천공항 도착(KE122)

■ 출장 내용

1.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Acting CEO, 부원장 면담, 국제공동학술  
세미나 및 MoU 체결

가. 회의 개요

- 일시 : 2017. 7. 6 (목) 09:30 - 16:00
- 장소 : 4 National Circuit, Barton, Canberra
- 참석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호주형사정책연구원
김진환 원장	Paul Williams, Acting CEO(호주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CEO가 공석임)
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장	Rick Brown, 부원장
전현욱 국제홍보팀장	Samantha Bricknell, 연구매니저
안수정 위촉전문원	Anthony Morgan, 연구매니저

## 나. 주요 논의내용

AIC와 ACIC의 Acting CEO인 Paul Williams는 교류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김진환 원장 및 KIC 대표단에게 환영사를 전했다. Paul Williams는 AIC와 ACIC의 병합에 대해 먼저 언급했는데, 현재 AIC는 정부기관인 ACIC(Australian Criminal Intelligence Commission)와 병합되는 과정에 있으며 ACIC의 부원장인 Paul Williams가 AIC의 Acting CEO로서 원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aul Williams는 병합이 범죄 정보국 실무를 수행하는 ACIC에 연구역할을 중점으로 하는 AIC를 통합함으로써 연구와 정보 실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CIC에서는 실무자, 분석가 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하는데, AIC와의 병합은 연구원들의 협력까지 추가되어 범죄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국내범죄는 그 영향력이 국내에 그치지 않으므로 AIC는 KIC와 같은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국내 범죄, 나아가 국제범죄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자한다고 전했다.

김진환 원장은 환영사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며, 다음과 같이 답사를 전했다.

### <김진환 원장 환영사>

“Acting CEO Paul Williams, Dr. Rick Brown, Distinguished Colleagues, It is my great pleasure to address you today on the occasion of the signing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n academic and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the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the most esteemed research institute in the field of criminology and crime prevention in Australia and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The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have enjoyed a long standing friendship. If you look at the name, KIC and AIC, you can notice that there is some sort of bond between the two. AIC was a model for the KIC's foundation.

In 1989 when the KIC was being established, then President Chung, Hae-Chang with KIC members made a visit to AIC where our old friend Professor Peter Grabosky was a member of the AIC. We will meet him tomorrow at the MoU signing ceremony at the ANU. Thus it truly is a historic moment to finally sign the MoU with AIC.

Over the last decade, a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Programme Network of Institutes (PNI), both institutes have been working on the ways in which transnational crime can be prevented and combatted, raising awareness of global standards and norms in the area of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based on the rule of law.

This MoU will further commit us to work together towards our common goal of promoting universal respect for and fostering knowledge of criminal justice and the rule of law at the international level. Each side will pursue many significant activities such as the promotion of acade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institutes and researchers, and the promo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governments in need of assistance in increasing familiarity with and appreciation of international norms i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At this moment of celebrat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everyone who has contributed to the finalization of this MoU with dedication and efforts.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thank Dr. Rick Brown. His insight, goodwill, and friendship have made the signing of this MoU a reality. In closing, I would like to say I am very confident that AIC and KIC will be able to achieve more together and develop even stronger relationship and friendship.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assure you that KIC will continue to provide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is MoU. Thank you.”

Rick Brown 부원장 또한 ACIC와 AIC의 병합 과정을 통해 연구의 역량강화와 다양화를 기대하고 있고 AIC는 개별적, 독립적 성격을 가지고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ACIC는 연구에 대해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료 등 자원

을 제공하기 때문에 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병합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AIC 연구원 중 회의에 참석한 연구 매니저인 Samantha Bricknell은 약물, 살해, 형사사법, 인신매매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Anthony Morgan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사건 처리과정, 범죄 대응의 실효성 측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현재 AIC는 총 4명의 연구매니저 (캔버라 상주 2명, 멜번 상주 1명, 시드니 상주 1명)와 총 20명의 연구원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매년 30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Rick Brown은 AIC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는 성범죄자 등록제도 도입에 관한 증거기반 연구가 있는데, Crimtrack Agency라는 ACIC의 또 다른 편입기관이 보유한 아동 성 학대 및 아동 음란물관련 국내 정보를 통해 범죄학 연구를 결합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호주는 8개의 주로 이루어져 주 정부의 권한이 독자적으로 강한 성격을 띠므로 주별로 시스템 도입 현황이 다르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성범죄자 공공 등록제도는 현재 서호주에서 도입되었고 빅토리아주에서도 도입될 예정인데, 본 제도의 작용방식과 효과에 관한 연구가 AIC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Rick Brown은 아동 음란물의 경우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컴퓨터가 유사 자료를 찾아내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Paul Williams는 AIC, ACIC, Crimtrack Agency가 범죄학 연구 결과물, 정보국의 정보, 경찰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공동 접근권을 가지고 각 기관이 연구 또는 정보획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획득의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대두되는데, 정보 출처가 대부분 주 경찰이 보유한 정보이므로 관련인물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하므로 한계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보국에서 보유 또는 획득한 정보가 연구원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장은 성범죄자 등록시스템과 같은 분야는 KIC와 AIC의 공동 관심분야이며 본 주제 또는 다른 연구주제로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고, 인적 교류를 통한 연구 활성화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또한 연성진 실장은 KIC 소개시간을 통해 KIC의 연혁, 부서 및 주요 활동들을 소개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ontents

- About KIC
- Organization
- Major Activities
- International Cooperation

## HISTORY

"The cradle of criminal policy for a lawful society, Where the rules and principles stand upright"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contributes to preventing crime and establishing national criminal justice policies grounded in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esearch on the causes and trends of crime



Member of the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Institutes since 2004

National research institute in crime & criminal justice in Korea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1989) - now under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 ORGANIZATION



## MAJOR ACTIVITIES



## PART 01 HISTORY OF THE KIC

## RESEARCH AREAS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Criminal L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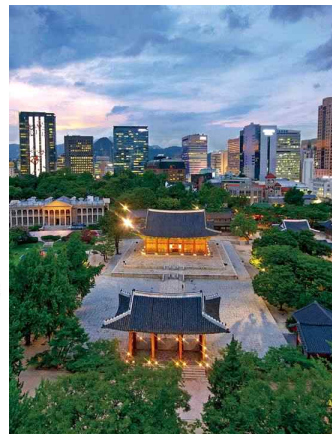
Corrections

Crime causes and processes

Crimes trends  
Criminological theories  
Crime statistics  
Victimization survey  
Crimes in Minorities  
Forensic-crime profiling  
Juvenile delinquency

Penal Code  
Criminal law reform  
Criminal procedure law  
Comparative law  
Sentencing guide  
Juvenile act  
Review of legislation

Probation & Parole  
Institutional Treatment  
Halfway treatment system  
Community corrections  
Amendment of prison law



## PART 02 MAJOR ACTIVITIES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TERNATIONAL FORUM (KICIF)

The first KICIF was hosted under the theme of Challenges and Strategies for Ending Corruption: Zero-Tolerance, Accountability, and Integrity in 2014. The KICIF 2015 agreed Korea should face up to terrorism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building a worldwide network to prevent and address transnational terrorism. The KICIF 2016 was held on the theme of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Criminal Justice for Combating Terrorism.

The KICIF serves as a platform for sharing opinions, providing measures, and reviewing the current issues on the field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The KIC hosted the second regional meeting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on November 14-16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 and the Thailand Institute of Justice (TIJ).

The meeting served as a platform of information sharing for representatives from national statistical agencies and institutions using the data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from 22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and delegate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articipated in the mee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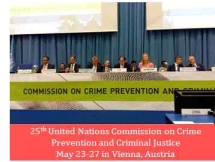
## MAJOR ACTIVITIES



60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March 13-17, 2017 in Vienna, Austria



4th Northeast Asian Forum for Criminal Justice  
July 11-12, 2017 in Jeju Island, Republic of Korea



25th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May 23-27 in Vienna, Austria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overnance, Crime and Justice Statistics  
June 7-10 in Merida, Mexico

## INTERNATIONAL COOPERATION

01

- Offering Technical assistance in Asian countries
- Providing training to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officials
- Building a network of researchers and experts for cybercrime research
- Acting as a clearinghouse of research resources for the public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 (VFAC) Project

02

Provide a regional framework to implement the culture of rule of law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to respond efficiently to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owards Asiajust Programme

03

Since joining the UNPNI in 2004, the KIC has been working closely with the member institutes  
United Nations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of Institute (UNPNI)

United Nations Projects & Activities

# THANK YOU

## <KIC 기관소개>

이어서 전현욱 국제홍보팀장은 KIC 연구 분야 소개를 진행하며 KIC Research Reports I & II를 AIC측에 증정했다. AIC 연구진은 KIC의 연구과제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특히 범죄피해조사의 동향, 진행방식과 질문내용에 관심을 보였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어서 전현욱 팀장은 ‘개인정보 Privacy의 법률적 보호’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KiC**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Legal Protection of Information Privacy

Dr. Hyun-Wook Chun  
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Strategic Research Center

6 July 2017

## Agenda

- Case – Legal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Legal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 Legal Sanctions
- Duty of Chief Privacy Officer
- Instrumental Irrationality of Cybercrime Law
- Adverse Effects – Downward Equalization
- Recommendation – Privacy by Design

**KiC**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Case – Legal Protection of Information Privacy

### •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1):

“The term “**personal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that pertains to a living person, including the full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mages, etc., by which the individual in question can be identified, (including information by which the individual in question cannot be identified but can be identified through simple combination with other information).”

\*Same Definition in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rticle 2-1(6)

## Legal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that **pertains to a living person by which the individual in question can be identified through simple combination with other information.**

### Ambiguous, Only a Collection of Concepts

- Are ID and Password personal information?
- E-mail address? Four digits of phone number? IMEI(356455045353626), IP, MAC, ETC.
- Is crawling of SNS texts, images that users voluntarily posted by themselves considered a breach of law?

##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 From Privacy to Personal Information:** From informational defense (passive control) to active control
- Rights:** One can attain his/her intent against others' will
- Forcing enforcement through legal means
- Limitation of Law:** Asymmetry of power between user and service provider
- Can a single user disagree with the Terms of Service?

## Legal Sanctions

- Civil, Administrative, Criminal sanctions imposed when such Right is infringed
- Damage compensation against illegal acts
  - Shifting burden of proof
  - Statutory Damages (up to KRW 3 million or USD 3K per person)
- Fine for negligence & Penalty surcharge
- Penal Provis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fine not exceeding KRW 50 million (USD 43K)” (= Negligent Murder in the conduct of business)

## Duty of Chief Privacy Officer (CPO)

-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s Active Control Right
- A chief privacy officer (CPO) has the duty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measures to ensure security
- Civil, Administrative Criminal punishment
- When personal information is leaked,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is victim and a suspec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KRW 10 million (USD 9K)”

## Instrumental Irrationality of Cybercrime Law

- With Strong Sanctions, Is the Right Protected?**
  - Can a subject of information actually reject to disagree with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 Does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actively fulfill the duty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 When implementing legal duties, is personal information actually protected?
  - When information is infringed, are sanctions and damage compensation properly executed?

## Adverse Effect – Downward Levelling (1/2)

- Trans-nationality of cyber space, volatility of digital evidence, technical dependence of investigation
- Hackers always outpace information protection & digital forensic technologies
- Due to a gap between law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concepts of law remain ambiguous and broad
- :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 Adverse Effect – Downward Levelling (2/2)

- Reasonable limitations has to be set in Liability
  - Ex. Damage Compensation KRW 100K for 18 million victims  
=> KRW 1,800,000,000,000 (≈ USD 2 Billion)
- Latest technology being non-enforceable
- Legal Liabilities work only as the minimum standard for exemption
- Security technologies advanced than the minimum standard becomes additional costs : downward levelling of security

## Recommendation – Privacy by Design

- Limit unnecessary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learly and specifically
- Introduce detailed provisions on allowing public use of de-identified data
- Adopt social a structural approach:
  - Enact procedural law for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 Use an interest mechanism to orient corporations towards information security
  - Use public subsidies, penalty surcharges, punitive damages

Thank you

- Dr. Hyun Wook Chun
- [sinawe@kic.re.kr](mailto:sinawe@kic.re.kr)
- Phone: +82 2 3460 5134

<전현욱 국제홍보팀장 발표내용>

Rick Brown은 AIC의 중점 연구 분야와 동향,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호주 내 살인사건 발생률은 낮은 편이고 경찰 구금된 수형자 중 1/4



은 원주민 인구라고 설명했다. AIC의 네 가지 중점 연구 분야는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 사법적 대응, 범죄와 형사사법의 미래, Volume Crime과 조직범죄의 연관관계, 감옥 수요 감소방안이다.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범죄피해율에는 변화가 없어 두 비율의 격차를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높은 폭력 재발률로 인해 반복적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경찰의 대응방식을 조사해 효과적 대응책을 통한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범죄와 형사사법의 미래 분야에서는 형사법정에서의 비디오기술 사용, 감옥 내 비디오 모니터링, 고도기술을 갖춘 교정시설에 관한 연구를 언급했다. 최근 AIC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에 초점을 맞춘 “Crime Statistics Australia”라는 범죄통계 웹사이트를 론칭했으며, 관련 정보는 <http://crimestats.aic.gov.au>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다.



<AIC 소개 세션>

AIC측 주제발표 세션에서 연구 매니저인 Samantha Bricknell 박사와 Anthoby Morgan은 “경찰유치인에 대한 마약사용 모니터링 결과”와 “DNA의 증거사용과 이를 피하려는 범죄인들의 전략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Samantha Bricknell 박사는 Drug Use Monitoring in Australia(DUMA)를

통해 호주 내 경찰 구금자를 대상으로 약물남용에 관한 설문조사 및 샘플채취를 1999년부터 23년간 진행해왔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약의 종류와 마약구매 경로, 알콜 및 약물과 폭력의 관계를 조사했다고 소개했다. 구금자 중 82퍼센트는 조사 질문지 응답에 응했고 69퍼센트는 소변 검사에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2015, 2016년 조사결과 구금자중 75퍼센트가 최소 한 가지 마약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고 40퍼센트는 여러 종류의 마약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이 사용된 약물은 메스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Anthony Morgan은 연령대별 DNA 증거사용에 대한 태도와 범죄시 DNA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연령대가 어릴수록 DNA 증거사용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범죄에 있어 DNA조사를 피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변인으로부터 DNA조사를 피하는 방법을 전수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Samantha Bricknell, Anthony Morgan 연구매니저 발표>

주제발표가 끝난 후 MoU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김진환 원장과 Paul Williams는 MoU 문서에 서명하고 교환했다.





<KIC-AIC MoU 서명>

이후 공동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면서 연성진 실장은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AIC 측의 연구원을 KIC에 일정 기간 파견하는 방안, KIC 연구원을 AIC에 파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공동연구 관심분야는 AIC가 활발히 진행하는 가정폭력연구, 사이버범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범죄), 약물남용, 경찰 대응방안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연성진 실장은 또한 한국 버전의 DUMA를 디자인 하거나 론칭하는 데 AIC가 협력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으며 AIC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Rick Brown 부원장은 공동세미나 개최를 제안했다. 같은 주제로 호주와 한국에서 각각 세미나를 개최하고, AIC연구원들이 한국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KIC 연구원들이 호주의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개최 시기는 2월초 또는 3월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인적교류 및 지식 교류를 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공동연구 분야에 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 2.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와 MoU 체결

### 가. 회의 개요

- 일시 : 2017. 7. 7 (금) 14:00 - 19:00
- 장소 : 8 Fellows Road, Acton, ACT Canberra
- 참석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호주국립대학교
김진환 원장	Michael Wesley 아시아태평양 지역학부 학장
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장	Peter Grabosky 교수
전현욱 국제홍보팀장	Roderic Broadhurst 교수
안수정 위촉전문원	Veronica Taylor 교수 외 ANU Cybercrime Observatory 소속 연구원 3명

### 나. 주요 논의내용

학장 Michael Wesley는 환영사를 통해 호주와 한국이 중견 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지이며 MoU를 통해 사이버범죄를 포함한 국제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협력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김진환 원장은 다음과 같은 답사를 통해 VFAC의 초창기 멤버인 Peter Grabosky 교수와 Roderic Broadhurst 교수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학부와 교류협력을 맺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 활발한 연구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해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진환 원장 환영사>

“Dean Michael Wesley, Professor Roderic Broadhurst, Distinguished Colleagues, It is my great pleasure to address you today on the occasion of the signing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n academic and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Asia and the Pacific, the most esteemed University in the field of Asia and the Pacific studies in Australia and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The Professors at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nd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have enjoyed a long standing friendship in the field of cybercrime. During the 11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held in Bangkok, Thailand in 2005, the need for creating a virtual forum for training on cybercrime and strengthening the capacities of criminal justice officials in dealing with cybercrime was highlighted. To realize the mission manda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the KIC in cooperation with the UNODC began developing the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 from 2005 to 2009, operated its initial platform from 2010 to 2013 and further refined and upgraded its features from 2014 to present.

Distinguished Professors Peter Grabosky and Roderic Broadhurst have largely contributed to the founding of VFAC, arranging lecture modules and materials. Most recently in 2016, KIC and ANU Cybercrime Observatory successfully conducted a joint research project on cyberterrorism. Another joint research project is scheduled for 2017.

This MoU will further commit us to work together towards our common goal of promoting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crime, cyber security and many other areas of common interest at the international level. Each side will pursue many significant activities such as the promotion of acade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institutes and researchers, and the promo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governments in need of assistance in increasing familiarity with and appreciation of international norms i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At this moment of celebrat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everyone who has contributed to the finalization of this MoU with dedication and efforts.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thank Professor Roderic Broadhurst. His insight, goodwill, and friendship have made the signing of this MoU a reality. In closing, I would like



to say I am very confident that ANU and KIC will be able to achieve more together and develop even stronger relationship and friendship.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assure you that KIC will continue to provide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is MoU. Thank you.”

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장은 Broadhurst 교수와 Grabosky 교수가 UNODC 미션인 VFAC에 큰 기여를 한 교수님들이고, 앞으로 ANU가 동-서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Veronica Taylor 교수는 내년 론칭을 앞두고 있는 석사과정을 소개하면서, 범죄학, 개발학, 심리학, 공학을 아우르는 학제간 학문을 기반으로 한 석사과정을 기획 중에 있다고 소개하며, KIC의 연구가 이러한 학제간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ANU와 KIC는 사이버범죄 뿐만아니라 범죄학의 여러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Broadhurst 교수는 ANU 사이버범죄연구소에 대해 설명하며, 연구소의 실험실에서는 피싱, 봇넷과 같은 기술의 실험을 진행한다고 했다. 피싱은 그 가치는 낮지만 양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무기 제조, 아동착취, 아동음란물 등도 연구소의 연구 분야라고 소개했다. 사이버범죄 분야서는 맬웨어(Malware)의 진화 과정 또한 연구하며, 스팸과 맬웨어는 호주 법무부로부터 정보를 받아 연구한다고 말했다. 사이버 테러리즘은 소위 “빅 데이터 잡(Big Data Job)”이라 일컬어지며 국가 주도의 범죄, 조직범죄, 비국가 단체 등이 연루되어 범죄자의 경계를 흐리고 있으므로 국가 간 교류를 통해 대응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성진 실장은 그에 대해, 범죄활동과 정상 활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젊은 세대가 현실세계보다 사이버공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범죄활동에 연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초등생 납치 살해사건을 언급하면서 가해자인 17세 고등학생이 가상세계 게임에서 하던 역할을 현실세계에서 수행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성세대와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 대한 더 많은 지식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Peter Grabosky 교수는 그에 동의하며, 사이버 범죄의 가해자가 조직범죄단체인지, IT 보안업체인지 국가인지 귀속성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갈수록 더욱

복잡 다양한 IT 기술을 사용하여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범죄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ANU와 KIC가 함께 연구해 나가야 할 분야가 많고, 이번 MoU를 통해 같이 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Veronica Taylor 교수는 사이버범죄 대응에 있어 민간산업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세안(ASEAN) 국가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사이버범죄 유닛을 개설해 사이버범죄 법안 초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간분야가 법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IT 기업의 공학기술이 사이버범죄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학제간 연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Broadhurst 교수는 범죄학, 법학과 컴퓨터공학 이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학문간의 교류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김진환 원장은 비트코인이 범죄활동에 사용되는 현상을 언급하면서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이 투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하셨고, Broadhurst 교수는 비트코인과 랜섬웨어(Ransomware)가 블록체인을 이루고 있다며 그 영향력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NU와 KIC가 효과적인 비트코인 모니터링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논의 이후 연성진 실장은 KIC 소개 발표를 통해 KIC 연혁, 연구부서, 주요 활동 등을 소개했고 전현욱 팀장은 KIC 연구분야 소개를 진행했다. Veronica Taylor 교수는 KIC의 연구 분야가 ANU의 연구소들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와 겹친다며, 공동연구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진환 원장은 Peter Grabosky 교수에게 스톡홀름 범죄학 대회 참석 때 받은 교수의 저서 “Cybercrime” 책의 한국어 번역 출간을 연구원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고 제안했으며 Grabosky 교수는 동의하였다. 또한 KIC Research Reports I & II는 ANU 도서관에 비치하겠다고 전달했다.

Michael Wesley학장과 김진환 원장은 MoU 문서에 서명하고 교환했다.



<MoU 체결 및 KIC-ANU 교류협력 논의>

### 3. 제 9회 아시아범죄학대회 참석

#### 가. 회의 개요

- 일시 : 2017. 7. 10-13 (월-목)
- 장소 : Shangri-La Hotel Cairns
- 참석자 : 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장

#### 나. 주요 내용

제 9회 아시아범죄학대회는 아시아범죄학학회와 퀸즐랜드 공과대학교 범죄

및 형사사법 연구센터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Crime and Justice Research Centre)가 ‘아시아와 남반구의 범죄 및 형사사법 (Crime and Justice in Asia and the Global South)’을 주제로 공동개최했다. 본회의의 대주제인 ‘아시아와 남반구의 범죄 및 형사사법 (Crime and Justice in Asia and the Global South)’에서 ‘Global South’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남반구 범죄학 연구 및 정책의 중요성은 국제 안보와 정의에 있어 남반구-북반구 관계가 가지는 영향과 깊은 관련이 있다. 남반구 이론은 범죄학적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계층적 힘의 관계를 반영하며 남반구의 이론적, 경험적 지식들은 현재 국제사회가 경험하는 도전과 이슈들에 대해 좋은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남반구 이론의 목적은 범죄학에 있어 개념적이고 실증적인 발전을 간과하지 않고 범죄학적 개념 및 이론과 방법론을 더욱 실용적으로 비식민화하고 민주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남반구 범죄학이론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 번째는 세계의 주변부 지역(종속이론에서 언급되는 중심부-주변부)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정한 형태와 패턴이고, 두 번째는 사회, 문화, 종교, 정치적 요소들에 의해 형성되는 독특한 패턴을 가진 젠더(Gender)관련 범죄이며, 세 번째는 남반구의 역사적 특수성 및 현대 형벌제도와 식민주의, 제국 건설간의 역사적 연계성이다. 본 회의는 이러한 남반구 이론을 중심으로 범죄학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는 연구 패러다임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개최지인 호주의 특수한 역사인 원주민에 대한 폭력과 억압 그리고 인권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경찰, 화기 및 비상대응 당국의 장관 Mark Ryan과 아시아범죄학회 회장 Chuen-Jim Sheu의 환영사에 이어 Raewyn Connell 시드니대학 교수가 “범죄학 지식의 비식민지화 (Decolonising knowledge for criminology)”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동시세션으로 진행된 본 회의 주제에는 원주민 사법(Indigenous Justice), 남반구의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in the Global South), 남반구의 사이버범죄 정책 비교(Comparative Cybercrime Policies in the Global South), 지역사회 치안(Community Policing), 재범과 재활(Recidivism and Rehabilitation), 국제 사법(International Justice), 온라인 개인정보 및 보안(Online Privacy and Security), 약물남용(Drug Use), 아동학대(Child Abuse), 초국가적 범죄 및 통

제(Transnational Crime & Control), 금융범죄 (Financial Crime in the Global South), 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 Southern Perspectives), 가정 및 성폭력(Domestic, Family and Sexual Violence)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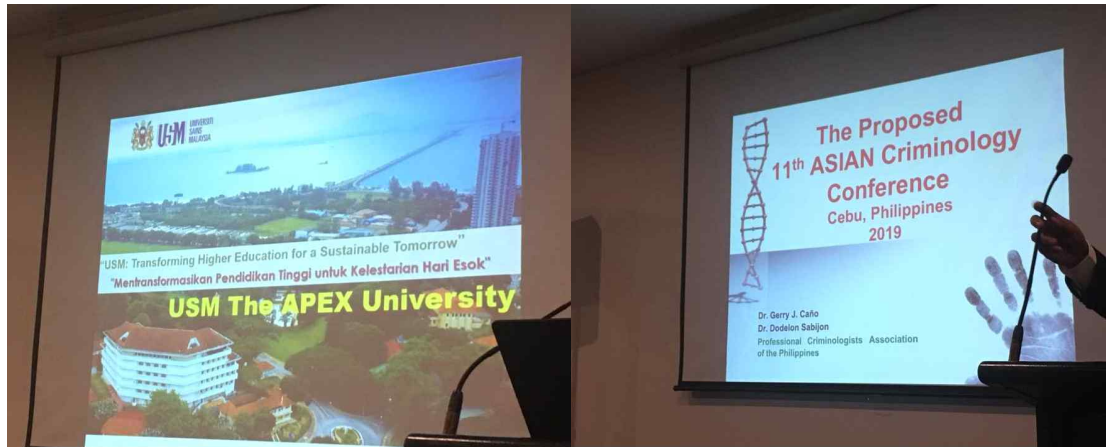
아시아범죄학대회에는 김진환 원장이 특별 발표자로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되어있었으나 국내 및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장이 원장대행의 자격으로 대신 참석했다. 연성진 실장은 특별 세션인 세션 8 (Crime and Justice in Asia)에서 R. Thilagaraj 교수, Anqi Shen 교수, 아시아범죄학회장 Chen Jim Sheu 교수와 더불어 특별 발표자로서 ‘떠오르는 사이버 금융사기의 형사 사법적 대응방안 (Criminal Justice Responses to Emerging Cyber Frauds in Global Community)’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장 특별세션 발표>

또한 연성진 실장은 원장대행의 자격으로 10일 개최된 이사회 미팅에 참석해 추후 아시아범죄학대회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 결정사안으로, 2018년 제 10회 아시아범죄학대회는 말레이시아 페낭(Penang)에서 말레이시아 세인트 스ains 대학교(Universiti Sains Malaysia)가 7월 초 공동개최 할 예정이고, 2019년 제 11회 회의는 필리핀 세부에서 필리핀 범죄학자 및 형사사법 전문가 학회 (Philippine Society of Criminologists and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가 ‘2030년 이후 범죄학과 형사사법의 맥락형성 (Contextualizing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in 2030 and Beyond)’을 주제로 공동개최 할 예정이다. 2020년 제 12회 회의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며

싱가폴국립대(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가 공동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아시아범죄학대회 이사회 미팅 발표>